

가보면 정착하고 싶은 '강진군', 귀농귀촌 체험 '찐맛집' 인기

전라남도귀농산어촌맛보기 교육, 생생한 체험으로 도시민 마음 사로잡아

강진군이 귀농귀촌을 꿈꾸며 찾아오는 도시민들의 현장 체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귀농산어촌맛보기 교육'이 최근 강진군과 장흥군 일대에서 2박3일간 진행되며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도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싶은 농촌'을 직접 체험하는데 방점을 뒀다.

일정의 시작은 강진군에 정착한 우수 귀농인의 사인머스켓 농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문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도시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농촌의 일상을 직접 보고 들으며, 현장감 있는 설명과 함께 귀농 과정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해법을 공유받았다.

특히 "책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살아있는 정보"라는 참가자들의 소감은 이번 현장체험의 가치를 그대로 보여줬다.

어렸다.

현장의 여운을 안은 채, 참가자들은 저녁 무렵 강진군의 대표적인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따뜻한 집밥과 별이 쏟아지는 시골 밤하늘, 마당을 오가는 마을의 정취 속에서 도시민들은 농촌이 주는 정서적 안정감을 온몸으로 느꼈다. 푸소 농가에서의 하루밤은 단순한 숙박을 넘어, 강진의 삶을 체험에서 공감으로 전환시키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둘째 날 일정은 인근 장흥군에서 진행됐다.

지역 간 협력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에게 전남 남부권의 농촌 자원을 폭넓게 이해할 기회를 제공했다. 장흥에서의 일정 후 다시 강진으로 돌아온 참가자들은 강진군 소재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며 도심형 숙소와 관광 인프라로 함께 체험했다. 강진이 단지 농촌이라는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민들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연스레 자리 잡게 된 시간이었다.

마지막 날 오전, 프로그램의 핵심인 강진군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방문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귀농을 준비 중인 이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과 교육 환경을 둘러봤고, 강진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체류형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다. 주거, 교육, 정착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갖춰진 시스템은 귀농을 막연한 꿈이 아닌 실행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게 했다.

최영아 강진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도시민들의 시선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전국 어디에서든 '강진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귀농유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완도군, 공동 육아 나눔터 등 갖춘 '가족센터' 개관 지상 4층 규모 복합 가족 복지 공간 마련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6월 26일 가족 복지와 공동체 돌봄의 거점이 될 '완도군 가족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우철 군수를 비롯해 김양훈 완도군의회 의장, 군의원, 보건·복지·교육 관련 기관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센터 1층 다목적 소공동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은 댄스 공연과 해금 연주 등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및 테이프 커팅, 시설 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센터가 지닌 복합적 기능과 운영 방향에 대한 비전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완도군 가족센터는 지상 4층 규모의 복합 가족 복지 공간으로 ▲1층에는 다목적 소공동, 커뮤니티실 ▲2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다문화 자녀 이중 언어 교실 및 한국어 교실

▲3층에는 상담실, 사무실 ▲4층에는 교육실, 요리 교실, 동아리방 등 다양한 가족 맞춤형 공간이 마련됐다.

앞으로 가족센터는 육아, 상담, 다문화가정 지원은 물론 가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가족 복지'의 중심지로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가족센터가 가족애(愛)를 더 키울 수 있는 공간이자 모든 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울타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군민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폭넓고 따뜻한 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장선우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고금리 부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5년 3분기 금융지원 신청을 7월 1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최대 3천만 원 한도 보증대출 시 연 5% 이자 전액을 2년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300만 원 상당의 이자 비용이 절감되며, 현금성 지원에 준하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하반기 자금 지원은 연 150억 원

순천시, 7월 1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청·접수 최대 3천만원 대출 시 이자 전액 지원... 경영안정 효과 기대

규모의 '2025년 순천시 소상공인 금융지원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는 상반기 110억 원의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잔여 재원을 활용해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

되며, 폭염에 대비해 접수 시간이 앞당겨진 만큼 사전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시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 순천시 대전머리길 1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 역대 최대 발행 추진을 비롯해 ▲공공배달앱 먹게비 가맹점 배달료 신규 지원 및 소비자 할인쿠폰 발행 확대 ▲스마트기 설치비 지원 ▲착한가격요금 공공요금 지원 등 다양한 소비 촉진·경쟁부담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감도 높은 민생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골목상권 활력 제고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진도군은 지난 25일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25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기억하고 위대한 조국을 위해 젊음을 바쳐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행사에는 김희수 진도군수,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 6·25전쟁 유공자회

진도군, '6·25전쟁 제75주년 기념행사 개최'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 나갈 대한민국

등 7개 보훈단체 회원,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 군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모범 국가유공자 표창, 육군 제 8539부대 1해안감시대대 장병들의 군가 제창,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확산사업 관련 동영상 시청, 진도중앙유치원 열매반

아이들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진도군에서는 참전유공자의 특별한 헌신에 대해 그에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소명 의식으로 민선 8기 출범 당시 월 7만 원이던 참전유공자의 명예 수당을 3년 연속 인상해 현재 월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지역 내 참전유공자들을 영웅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참전유공자를 소개하는 등 시민 참여형 보훈문화 확산사업을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 추진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마주하고 호국 보훈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아동급식시설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아동급식시설 교차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차점검은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관내 16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 간 상호 교차점검 방식을 적용해 시설 운영자들의 자율

고흥군,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위생수준 높인다! '2025년 상반기 아동급식시설 교차점검' 완료

적인 위생관리 능력을 높이고, 모범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위험이 커지는 시기에 맞춰, 조리장 위생과 식재료 보관·관

리, 급식일지 작성 여부,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20여 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교차점검은 상급 기관의 일회성 점검이 아닌 고흥군의 자체 계획에 따라 주도적으로 추진된 예방 중심의 위생관리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아동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장흥군, 뽀빠용Zip 옛 장흥교도소 서로살림터 워크숍

옛 장흥 교도소 경비교도대 리모델링하여 '서로살림터'로 새 단장

장흥군은 7월 5일부터 뽀빠용Zip(옛 장흥교도소)에서 서로살림터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뽀빠용Zip 서로살림터는 옛 장흥교도소의 경비교도대 구역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곳으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 기술, 자연 살림, 자원순환, 생존 감각을 배우는 곳이 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다양한 상호 학습, 생활 기술 프로그램을 배우고 자율적인 운영협업체를 구축하여 다양한 운영 주체를 발굴한 다음, 안정적인 공간 운영을 도모한다.

워크숍은 7월 5일 뽀빠용Zip 김형연 단장의 '서로살림터 운영 원칙 및 공간 철학 안내' 첫 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광주 삶 디자인센터 박형주 센터장의 공유공간 레퍼런스 강의, 수리상점 김순 유혜민 대표의 우산 수리 워크숍, 제

로웨이스트, 리필 스테이션 운영사례를 배울 수 있는 한걸음가게 김지현 대표의 자원순환 가게 운영 사례, 안버림연구소 최석탄 대표의 폐자재 업사이클링 제작 실습이 차례로 진행된다.

또한, 자연 살림으로 일상을 예술로 디자인하는 목신의 숲 윤용신 대표, 맑동정미소 김영대 대표의 구들장 놀이와 마을정미소 프로젝트 소개, 도시 정원을 지역에 맞는 나무, 풀, 꽃으로 꾸미는 자연가드닝 강의는 산이정원 이병철 대표가 맡는다.

세부 프로그램 진행 후에는 광주 북구 문화의 집 정민홍 대표의 지도 아래, 참여자들이 직접 피인릿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설계하며 피드백 받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통해 선정된 5개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하반기 서로살림터에서 자율 운영하게 된다. /장흥군 제공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색감처럼**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순수**로 나 자신을 사랑할 것. **늘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헛갈 같으면 **알고 싶으면**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과 **내가 나를 알아봐 줄 것.**
 나보다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게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나의 우주와**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소중함을**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이까 **자칫 무의미해 보이는 꿈같은 것** **에서**
기억스레 생각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살아**
 평범함의 **더 크게 웃을 것** **포근한 이** **이들**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일상을** **우어도 보는 것.**
 마음이 편해진다 **만드** **기** **할 것.**
및 **장이나** **될까,** **잠시** **을** **리우**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다**
 풍만한 **필연 강하다는 것**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의**
 미래의 현재가 **가** **극한** **사람,**
 내가 정말 **팬잖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인** **한** **것**
엔 **다** **잘** **될** **테** **니** **까** **내** **가** **한** **회**
그 **자체** **만** **으로도** **가** **한** **회**
 좋은 거라면 **가** **한** **회**
은 **언제** **나** **우** **연** **키**
한 **회**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